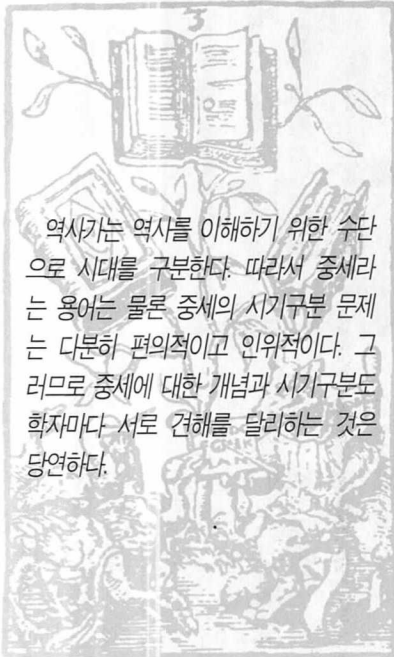


흘러가는 역사 속에 빛나는 중세

신비주의 · 인문주의는 중세문화의 뿌리

홍성표 · 충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가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따라서 중세라는 용어는 물론 중세의 시기구분 문제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인위적이다. 그러므로 중세에 대한 개념과 시기구분도 학자마다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세라는 용어는 15세기 르네상스 정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게르만족의 로마침입으로 고전고대의 문화와 예술이 파괴돼 야만성이 드세지고 기독교 정신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기준이 됨으로써 인간성이 약화된 시대가 바로 중세라는 주장에 근거한 견해다. 그러므로 14~15세기 이탈리아 휴머니스트들은 자신의 시대에 전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성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계몽주의 시대 중세는 '암흑기'

이런 시각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됐다. 계몽주의자들은 고대문화를 찬양하고 중세의 야만성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휴머니스트들의 노력을 찬양했다. 이들은 휴머니스트처럼 고딕예술과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처럼 중세교회와 사회가 비이성적이고 무지하며 초대교회의 복음주의적 정신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당시의 지적 풍토 속에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중세사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다"는 볼테르의 말 속에 함축돼 있다. 편견과 무지가 담긴 중세에 대한 이런 규정은 개개의 가치를 강조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세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연구성과도 집적돼 갔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사를 비롯한 제도사에 치중됐으며, 20세기에 이르러 점차 사회·경제사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스트와 계몽주의자들의 중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잔영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에 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세에 대한 재평가 작업

20세기 중세사학자들은 중세란 정말 고전고대와 근대의 중간에 무의미하게 끼어 있는 시대인가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앙리 피렌스의 전통적 시대구분론에 대한 논쟁, 모리스 돕과 폴 스위지간에 벌어진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논쟁, 로버트 브레너 논쟁으로 불린 중세와 근대 경제발전론에 대한 논쟁 등이 중세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학문적 소득이다.

중세사회를 정체인 사회로 규정한 주장과 이론의 허구성을 밝혀내기 위해 10세기 이후 상업의 부흥과 도시발달,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난 사회적 유동성을 강조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와 함께 라틴고전과 로마법의 부활, 근대 국민국가의 기초가 된 봉건왕조의 형성, 대학의 발생, 근대 국민문학의 기초가 된 지방어의 등장, 도시의 발달과 상업부흥에 따른 상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휴머니스트나 계몽주의자들이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내세운 필수적인 요소가 12세기에 형성되고,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2세기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 이른바 근대의 시작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중세의 위대한 문화적 성과 이면에는 신비주의와 인문주의가 놓여 있고 그 뿌리는 고대에서 찾을 수 있다. 신비주의의 본질은 인간성을 초월한 정신력에 인간성을 귀속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10세기 이후 거대한 수도원이 신비주의가 조장한 배경 속에서 부흥했고, 이 시기부터 라틴교회에서 신비주

의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전통 속에서 루터를 비롯한 교회개혁가들이 출현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는 중세문화의 심층에 흐르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중요한 뿌리였다. 즉 신비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세와 근대는 동일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세인은 고대부터 기독교와 함께 그리스로마문화의 상속자다. 그들이 상속받은 문화를 11~12세기까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카롤링거와 오토대제 시대의 라틴고전에 대한 관심, 12세기 초 북부 프랑스에서의 라틴문학의 번영이 바로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12세기 인문주의의 부흥은 14~15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완성됐다. 그러므로 근대정신의 기본인 인문주의는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로 계승된 것이다. 즉 중세에서 근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세의 독창성 발견

20세기 중세사학자들은 중세에 대한 편향적 역사관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기초를 세우고, 이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21세기를 맞으면서 중세사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중세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에 집중돼야 할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에서 생성·발전돼 근대사회로 전달된 근대성의 문제, 예컨대 인문주의적 요소를 찾아내는 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또한 중세사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좀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명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관련 봉건제가 존재했는가, 존재했다면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가, 이는 경제발전 단계설에 입각해 만들어진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대를 입증한다.

20세기의 역사는 강자의 것이었고, 역사연구와 그 서술마저도 대중이 아닌 지배자편에서 이뤄졌다. 그러므로 20세기 말에 이어 21세기에도 지배층보다는 대중의 의식을 해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중세사회를 복원



중세의 지식은 대학으로부터 나왔다. 그림은 《중세의 지식인들》 중에서.

하려는 노력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한다.

한편 21세기 역사와 그 연구는 서유럽사 중심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근대와 현대를 중시했던 시각 또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록 15세기에 멸망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비잔틴 제국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중세 기독교의 정신과 그 공헌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1세기의 중세사학이 추구할 방향은 이론보다는 사료를 수집·정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좀더 본질적인 중세사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통사학적 방법론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실현되려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언어적 제약에서 벗어난 중세사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중세사학은 물론 중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중세는 다만 중세일 따름이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이 다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만이 있을 따름이다.” ◆